

우 수한 기술을 자기 혼자만 알고, 남에게는 가르쳐 주지않는 사람들을 보고 「청기와 장사」라 부른다. 우리네 기술자들은 Know-how를 공유하는 습관이 적어 뛰어난 능력과 손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록의 부재에 따른 정보공유의 미흡으로 과거의 걸작들이 단발에 그쳤던 아쉬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靑磁, 白磁가 그랬고, 石窟庵이 그랬다. 중동 건설경기가 한창이던 80년대 초반, 국내의 모 건설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무려 다섯건 이상의 하자관련 클레임에 걸린 적이 있었다. 아마 이것이

## 「靑出於藍」의 胚胎

현재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記錄의 保存 및 情報의 共有性 缺乏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들로 생각된다.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그동안 체계적으로 각종 Know-how를 수집, 보유하여 고도의 Consulting 기법이나 Management 기법으로 구축된 외국의 선진기술 앞에 노동력을 앞세운 국내의 기존 재래식 기술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건설시장 개방을 앞둔 우리의 입장을 살펴볼 때, 정보공유화의 정착은 인적, 물적자원 낭비의 최소화 및 자료의 적시제공에 따르는 대외 경쟁력 배가를 위한 문제해결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의 공법 적용현황을 살펴보면 신공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과거 공법을 답습하는 경향이 강한 실정이다. 이는 정보공유 미흡에 따른 기술축적의 부족 및 신공법 적용시 기존공법과의 부조화 발생을 예상하는 인식부족에 의한 대책 수립 미흡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송상섭 / 상무이사

이러한 이유로, 현재 건축기술개발부에서는 건설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련자료의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효율의 제고를 목적으로



CENTA(Construction Engineering and New Technology Archives)라는 건설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92년 하반기로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CI/SfB 분류 코드체계에 의거, 건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분류, 검색할 수 있다.

CENTA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94년에만 3,374건의 자료가 입력되어 금년 5월 현재 2만건 이상의 자료가 수집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들은 수주에서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분야에 걸쳐 활용실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아직은 CENTA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뿐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면에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활용실적은 예상했던 만큼 크지는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는 全社的으로 ON-LINE 網을 구축하고, 제목위주로 입력되고 있는 CENTA 시스템을 Up-grade하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술자료 DB 시스템인 CENTA가 완전하게 가동될 경우, 이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건설정보들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有形無形의 파급효과는 그야말로 지대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도서실과는 별도로 전담요원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기술자료실을 운영할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며, 이미 컴퓨터와 컴퓨터간의 통신에서 컴퓨터群 간의 통신이 구현화되고 있는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는 우리의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더 우기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고속화도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정보처리능력이나 데이터의 보유정도가 사업의 성패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수준을 빠른 시간내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료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은 축적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균형있는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외국의 특정분야의 고도편향적인 기술의 도입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칼럼은 CENTA에 수록되어 있는 건설정보가 우리회사 임직원들에게 널리 활용되므로써, 기술력의 증진을 통한 품질의 향상 및 급변하는 세계 건설시장의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므로써, 보다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바램으로 기고되었다.

아마 정보공유의 습관이 정착되어 있었다면, 대구의 가스폭발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므로써, 靑出於藍의 擴散을 기대해 본다. **S**

축적된 자료를 공유  
하므로써, 균형있는  
기술의 발전을 도모  
하는 것이 외국의 특  
정분야의 고도편향적  
인 기술의 도입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  
로 판단된다.